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①

모든 선학의 근본은 제육의식

六意知法中修正觀相 如初坐中已明說 自上依六根修正觀相 隨所意用而用之 一一具上五番之意 是中已廣分別 今不重辨 行者若能於行住坐臥見聞覺知等一切處中修正觀者 當知是人真修摩訶衍道 如大品經云 佛告須菩提 若菩薩行時知行 坐時知坐 乃至服僧伽梨 視?一心 出入禪定 當知是人菩薩摩訶衍

여섯 번째로 의근으로서 지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의식은 색성향미촉 등 전오진이 의식에 떠오른 낙사영자(落謝影)인 법진의 모습을 인식한다.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지관을 수습하는 장에서 자세히 밝혔다.

다섯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다섯 가지란 아홉 가지 인연 가운데서 명(明), 공(空), 근(根) 등 세 가지 인연과 분별의연(分別依緣)을 제외한 경(境) 작의(作意) 근본의(根本意) 염정(염정) 종자(種子) 등을 말한다.

의식은 세력의 작용이 다른 식보다 광대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보편하게 일체법을 인식하여 삼경(三境)에 두루 통한다. 또 의식은 삼량(三量)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의식을 훌륭하게 사용하면 팔식 망상을 전환해서 사지보리(四智菩提)를 이룰 수 있겠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보리열반이 전환하여 번뇌생사를 이루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이야말로 모든 약의 근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선의 뿌리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생이 생사로 윤회하느냐 아니면 열반의 안락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이 의식의 작용에 의할 뿐 다른 물건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인식대상인 삼경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정(性境)이다. '성'은 자체성질이라는 의미이다. 인식으로부터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오식과 제팔식이 인식하는 색 등

오진인 실재경계의 모습에서 그 대상에 대해 명칭과 언어를 일으키지 않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마음도 없이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한다는 뜻에서 성정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독영경(獨影境)이다. 영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모습인데, 이는 상분의 다른 명칭이다. 그것은 허공 꽃, 토기 뿔처럼 명칭만 있을 뿐 실재가 없는 것과 과거 미래에서 환상 변화로 나타난 제육의식의 상분경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실재 종자가 없이 독자적으로 의식 속에서 나타난 상상으로 구성된 경계를 독영경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대집경(帶質境)이다. '대'라는 것은 함께 끼고 합한다는 뜻이고 '질'은 체질의 의미이다. 이 경계는 본질 상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실재와 같이 살피지 못하고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 경험으로 비교 추리해서 아는 경우이다. 비량(非量)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한다.

삼량은 육식이 분별하는 인식의 주체이고, 삼경은 인식 대상의 경계가 된다.

앞에서는 이미 열거했던 육근 가운데 각자마다 육진경계를 마주한 상태에서 지관 수행을 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를 의거해서 말해 본다면 그 숫자가 여섯이기는 하지만 본성 자체 가운데는 여섯이라는 간격이 본래 없다. 왜냐하면 본성 가운데서는 육근의 작용을 통일된 모습으로 알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육근으로 간격이 막히지 않는 하나의 본성을 본래 가지고 있어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항상 육근을 통해서 지혜를 발하여 선악과 주관 객관의 상대적인 모습을 본래 얻을 수 없지만 단지 중생은 이 같은 본성

작용을 동시에 걸림없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열반경'에서는 "어래는 하나의 근으로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구별하고 감촉을 느끼고 일체법까지도 안다"라고 하였다.

하나의 근이 그렇다면 나머지 근도 역시 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육근이 상호간에 걸림없이 작용하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아나율타 존자는 눈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발란타용존자는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었고, 극가신너는 코가 아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며, 교법발제는 혀가 없어도 맛을 알았으며, 순야디신은 몸이 없어도 감촉을 느꼈으며, 마하가섭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지혜가 원만하고 총명하여 명료하게 알았다. 이러한 사례 등이 육근이 걸림없이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마하연은 대승을 의미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전일하게 지관을 수습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대승의 도를 진실하게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대품반야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보살이 행할 때 행할 줄 알고 앉을 때 앉을 줄 알며 대가사를 입거나 눈으로 살피거나 감촉하는 순간에도 지극한 일심으로 선정에 출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량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일심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심이란 두 마음이 아닐을 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정에 안주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결여가도 선이 없고 선이어서 행주좌와 견문각지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정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리아타를 행하는 보살 가운데 대보살인 보살마하살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제육의식을 훌륭하게 사용하면 열반증득 잘못 사용하면 끝없이 번뇌 생사로 유전

예를 들면 제팔식의 견본이 인식하는 상분 그림자는 제팔식 견본인데도 그것을 주재하는 자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이다. 또는 제육의식이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삼경을 인식하는 삼량은 현량(現量) 비량(比量) 비량(非量)을 말한다.

현량(現量)은 환하게 드러난 것을 헤아리는 것인데, 전오식이 목전에 환하게 나타난 오진경계를 마주하였을 때 자체모습 있는 그대로를 분별없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비량(比量)은 과거에 인식했던 것과 현재를 서로 비교해서 추리하고 헤아려서 인식해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장 밖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아래에 불이 있다는 것을 과거

를 미혹하여 번뇌의 장애를 받을 뿐이다.

결국 본래 있는 진심이 간격이 없는데서 간격이 생겨 내 마음의 보리 열반을 위배하게 되어 보는 것은 색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가령 색을 보아도 보는 마음을 돌이켜 자성의 색을 보고, 소리를 들어도 마음을 돌이켜 자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육근 가운데서 하나의 근만 근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머지 오근 모두 동시에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엔 안근이 색을 볼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는 등 모든 육근의 작용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근 가운데 하나의 근이 모든 육근의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팔계(十八界)

(3) 십팔계는 무아아소(無我我所) 오온과 십이처 밖에 십팔계 법문을 수립한 이유를 다시 총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온과 십이처가 무아이고 무아소임(無我我所)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세계는 오직 중대한 사물이 존재할 뿐, 주관적인 심식이란 따로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유물론(唯物論)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물질의 부산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십이처 법문에서 설한대로 일체의 모든 인식활동, 즉 육식이 육근과 육경을 의지해서 그것을 상호보조적작용으로 깔고 일어나면 육근과 육경이라는 두 성질의 물질이 없으면 육식도 바로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식활동은 육근과 육경을 하나로 의지한 처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식활동은 본래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존재해야만 그것을 의지처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이 우리의 심식활동을 조성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오직 물질만 있을 뿐, 심식은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타파하려고 부처님은 십팔계 법문을 따로 설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계'는 종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체법법은 각자 자체의 종자가 있어서 그 자체의 종자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다른 사물을 의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곡식을 심을 경우 곡식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까지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알맞은 토양, 비료, 따뜻한 날씨, 비, 이슬, 사람의 노력 등 여러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곡식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여러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도 그 근본인 곡식종자가 없다면 곡식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께서는 일체법문의 종자를 우리의 제팔식 가운데 함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종자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인연, 즉 안근 또는 색경을 상호동시적인 보조인연으로 의지해야만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려고 십이처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체법문은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 다시 말해 육근과 육경만 갖추었다 해서 그것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제팔야뢰아식에 함장된 제법 자체 종자를 동시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제법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따로 십팔계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파다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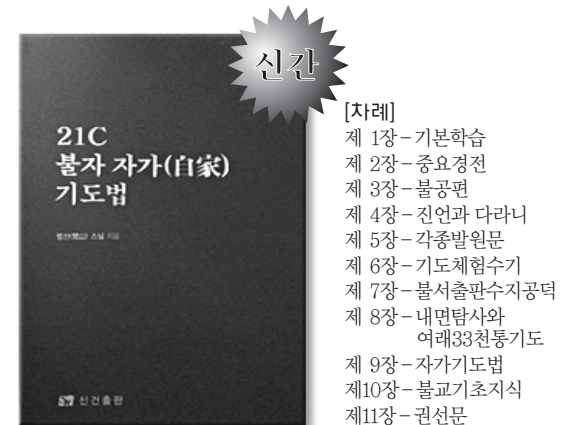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調) 범산(梵山)스님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調)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東山 無量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법무부 범치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한해종불교대학 대학원교수 한해종불교대학 객원교수 한여래암 주지 [논문]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원시불교의 신장사상에 대한 연구 Buddhism과 인도철학의 제학파의 비교 연구 공자상에 대한 일 고찰 독서문화의 정책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자 국역상용요법집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형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 10장 - 불교기초지식 제 11장 - 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글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엮음 [한글엮음·한문엮음]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엮음(기존엮음)과 한글엮음(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엮음+한문엮음)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엮음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엮음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엮음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엮음 중 '운운'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예로까지 배려하여 엮음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엮음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들(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엮음한다면 엮음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엮음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실합니다.

구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宗團名稱變更公告 대한新불교 조계종

- 舊名 : 한국 선불교 삼매종 ●新名 : 大韓 新佛敎 曹溪宗

금번 중회의원 정기총회에서 宗團名을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이에 公告 합니다.

변경일시 : 서기 2008년 8월 10일 총 본 사 : 055)673-3474

大韓 新佛敎 曹溪宗 總本山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16번지 영락사